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음 6월 23일) 제23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이용섭 광주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뒷줄 왼쪽부터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규제자유특구, 정부 컨설팅 통해 지원

문 대통령-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 관련기사 3면

시도지사들, 지역 간 연계 협업 가능 제도 개선 제안
 “지방분권정책 관련 법률안 다수 국회에 발 묶여” 우려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가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서울시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계기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혁신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가 일몰제에 의해 사라지게 될 상황에서 각 시도가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의 재정여건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장기미

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 정부 출범이후 특별히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관련 법률안이 대다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과 중앙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회 설득에 나서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루빨리 제도화해 실질적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혁신성장 관련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고 지역 간 연계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적 준비를 요청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법제화 이전이라도 자주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규제특구 운영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흥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매입을 위한 지방의 고충을 달기 위해 중앙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을 활용해 주고, 추가 지원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박람회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만남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선정발표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방안의 제정 방향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다. /김진성 기자

일본 수출규제 확대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전북도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2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기업체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확대를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뿌리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일본산 소재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이 많고, 일부 일본산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국산화가 가능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단기간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기업별 재고확보에 주력하고, 미국, 독일 등 제3국가의 부품 등의 수입대변화를 통해 대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진성 기자

종합경기장 예산 전주시안대로 통과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심의
 접점 찾지 못해 투표 진행
 찬 7·반 6... 올해부터 추진

전주종합경기장의 개발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전주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추경예산(안)을 전주시의 요구대로 모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주시 추경예산(안)을 사실상 최종 결정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반영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예결위는 의원들의 찬반표결을 통해 예산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투표결과, 총 13명의 예결위 의원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예산반영을 합의했다.

찬성은 양영환·김은영·강승원·최홍철·이남숙·이기동·송승용 의원이, 반대는 최명철·김남규·박선진·김동현·이윤자·서운근 의원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관련사업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은 완전히 뒤집혔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종합경기장 개발의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었다.

위원회는 추경(안)에 올라온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에 필요한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종합경기장 내에 들어올 백화점 임대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법률자문 비용 등이다.

이 예산은 (주)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내에 가져갈 임대부지의 임대금액을 산정할 예산이다.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 증축과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100억원 중 20억원도 삭감했다.

이 예산은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의 건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77억)와 문화재표본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비용이다.

의회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시의회가 전주시의 장학생으로 채워졌다는 의견을 듣지 않을 지 걱정이 되지만 장시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임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논의할 시간이 많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인권담당관·동물복지과 등 신설

전주시가 인권과 동물복지, 어르신 돌봄, 아동정책 등의 기능을 강화한다.

시는 사람·생태·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직 내 인권담당관, 동물복지과, 야호아이놀이터, 치매안심과, 스마트시티과 등 5개 과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기존 감사담당관 산하 인권센터팀을 인권행정 구현과 인권전반의 종합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책임질 인권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인권담당관은 인권정책팀과 인권 옹호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1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된다.

인권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인권보호 조사기능 강화 등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꾸준히 성장하는 반려견 산업과 동물보호에 대한 행정 수요 증가를 반영해 기존 동물복지팀의 기능을 확대해 동물복지과를 신설했으며,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안심과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 도시정보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시티과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야호아이놀이터과도 신설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고, 사람·생태·문화와 따뜻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전주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현대옥이야기 ①현대옥의 수오지심 ②신메뉴이야기 ③지역사회 참여 ④콩나물국밥의 맛 ⑤스토리가 있는 현대옥콩나물국밥 ⑥소중한 조리 유산-토령국밥 ⑦오늘은 엄마를 쉬게 하자 ⑧새로운 시작

수오지심(羞惡之心)

이 세상 식당의 어느 음식도 '절대 맛'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식당주인은 자신 식당의 음식과 친절에 대하여 늘 부족함을 느껴야합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대옥홈페이지 → 자료실 → 현대옥에서 드리는 글 → "성공의 길-수오지심"의 글에 "사업 성공·음식점 성공의 길"이 쓰여져 있습니다.